

2020년 10월 10-11일 주말 예배

<창립기념 설교> 우리가 교회다! 1.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NIV 성경]

4. *I always thank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9.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메시지 성경]

9. 여러분은 이끄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3주에 걸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위기' 혹은 'new normal'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되고, 형식보다 본질에 더욱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는 본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고린도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 '**교회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려 합니다. 아마도 편지의 서론만큼 필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로 인한 사도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4. *I always thank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애정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 .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 .

그런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환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인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저에게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고,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고민의 순간에 쫓기듯이 내 몰린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성경을 보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을 다시 정독하게 된 것입니다. 챔버스를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오스왈드 챔버스가 미국에서 1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결혼으로 가정을 꾸렸지만 안정된 직업도 살 집도 없었던 상황에 처한 챔버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9월 21일 즈음, 챔버스와 비디는 영국을 향해 대서양을 헤치고 나아가는 ‘SS 아르리아’호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비디는 미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고향이 그리웠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돈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10월 이후를 위해 따로 정해진 계획도 없다. 챔버스는 뒤로 젖혀지는 나무 의자에 기대고 앉아 파도가 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비디는 책 한 권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니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었다.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비디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나의 사랑’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이처럼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은 멋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리디머교회에서 “faith and work” 사역을 책임지는 캐서린 알스도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가장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복음과 열정을 전하는 일도, 삶의 모범이 되는 일에도 실패해왔습니다. 일터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일터에서 전문성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만큼 성숙한 인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명상을 하러 다녀온 직원은 주일마다 복음적인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보다 훨씬 생기발랄했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단련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세속적인 세상에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교인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세상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때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증거는 교회와 교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보다 세속적 권세와 세상 물질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계시가 없는 교회가 자리만 차지하고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에는 언제나 외적으로는 겉모습이 번듯하게 서있지만 ‘내적 실체’를 보면 어떤 권세와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권위를 주장하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교황의 권위가 아닌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한 동안 민주적인 분위기로 교회가 잘 유지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모든 일을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중세 암흑기에는 교황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했고, 이제는 ‘다수결’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보다 오로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조건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닌 듯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수'였으니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가장 큰 표징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신앙 패턴을 찾아가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서 저에게 좋은 통찰과 도전을 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하나,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을 때,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고민했던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19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낙관주의와 자유주의가 무신론을 주장할 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변증한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그렇게 편안한 책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기 충분했습니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성도의 공동생활, 혹은 교회란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교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 최적화된 공동체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관계의 덕목'을 쌓아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공동체의 불편과 희생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에게 기존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조카 '빌'에게 편지의 형식을 빌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아니,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히므로,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책임입니다.

이 책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갖 영접한 새신자를 낙심시키는 최고의 전략으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음정이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들, 삐걱 소리가 나는 장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 . . 이렇게 교인들이 꼴 보기 싫어질수록 교회가 싫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싫어질수록 기독교가 싫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마의 전략이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스캇 솔즈의 『선박에 선 예수』에 보면 유명한 뱀파이어 연대기 시리즈의 저자 앤 라이스 (Anne Rice)가 느지막이 크리스천이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크리스천이었던 그가 10년이 지나 기독교 탈퇴를 선언합니다.

“오늘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길 좋아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양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그만둔다. . .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분의 추종자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분이다.”

과연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답이 될까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며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용서, 용납, 오래 참음과 같은 값없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대교부중에 하나인 시프ريان(st. Cyprian)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손도 다리도, 혀도 서로에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아니, 현재 교회의 부족함을 보면서 처음 교회를 본받자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에서는 한 두 개 정도 문제가 보이는데, 고린도교회는 이 지구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집합소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캇 솔즈)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사람이 다른 불안정한 사람들과 함께 불안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사실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편지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것은 일견 이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어떤 면이 그리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바울의 긍정 마인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훌륭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아직은 불안전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스캇 솔즈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망가진 교회를 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를 보며 교회의 번영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교회에 대해 예수님처럼 생각했다. 그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딸, 예수님께서 영원한 혼약을 하신 그리스도의 신부, 서로에 대해 형제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들, 가족으로 여겼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교회는 때로는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다!

‘가족’이라는 말처럼 공동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은 확실하지만, 부르심을 받는 순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속할 공동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가족 구성원이 바뀝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 기쁨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사람을 버리거나, 우리가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일까요?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아내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 품어주고,

빚나간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려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안아주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고. . .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썽 많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음하는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수군수군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 . . 이 모든 이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인들을 향해, 아니 한국교회를 향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 하지 말아야 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 좋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글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필립 안시-교회라면 이제 진저리난다는 당신에게]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영성 작가 필립 안시는 미국 남부의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문제들을 보며 교회 회의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필립 안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나의 사랑'이었으며 '나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민의 눈으로, 때론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보이는 교회의 부족함을 부동켜안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고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회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필립 안시의 말을 통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초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었다. 교회는 파도가 넘실대는 거친 세상에서 나를 싣고 가는 구명보트였다. 교회는 우리를 죄 많은 바깥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외면적 규율의 벽을 두껍게 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근본주의의 엄격함이 나를 더 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엄격한 율법주의는 일탈 행위의 경계를 좁힌다. 하지만 외적인 것에 기초한 종교는 버리기도 쉽다. 나도 한 동안 그랬다. 넓은 세상을 맛보려고 유년기의 율법주의적 환경을 버리고 나온 것이다. 이전에 교회에서 쓰던 말이 기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렸다.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한마디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내 순례 여정을 되돌아보면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은 몇 가지 장벽이 있다.

첫 째는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누군가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다음은 문화적 장벽이었다.

공식적인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문화적 의식 같았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 등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장벽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에 대해 지독히도 회의했고, 고민했고, 결국 한참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몸으로 교회를 떠났던 기간에도 나는 교회를 끝내 포기하지 못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 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둘러보니 나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의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목사 등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포용하며 평화를 가꿔야 할 교회가 배제하며 분쟁의 주체가 되곤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국적과 인종,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가족 안에서 연합은 결코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은 결코 분열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벽을 허물어야 한다. 포용하며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일궈야 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그렇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빠격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저리 난다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